

발간 등록 번호  
51-3170000-000073-01

2020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특별전

# 특별한 보통날



## 전시 소개

1966년 금성사에서 제조한 우리나라 최초의 흑백텔레비전인 ‘금성 텔레비전 VD-191’을 기억하시나요? 19인치 화면에 제품에 따라 받침다리를 설치해 고급 가구의 이미지를 부여했던 이 텔레비전은 낙후된 전자 통신 기술 산업의 발달과 산업디자인의 역사적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영상매체 시대로 진입하게 된 토대를 마련한 물건입니다.

과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이 텔레비전은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문화재 제561-2호로 지정되어 근현대사 유물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흔히 보던 교과서, LP 판, 삐삐, PCS 폰 등의 물건들이 이제는 역사의 한 흔적이 되어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통의 물건들은 우리의 세월과 시대가 만나 역사의 순간을 기억하는 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구로공단 시절부터 현재를 살아오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담아 1960~1990년대의 다양한 삶을 다루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구로공단 및 그 시절과 관련된 추억을 가지고 계신 5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작은 전시를 진행합니다.

전시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되새기고, 추억이 담긴 전시품들을 토대로 우리가 살았던 그때 그 시절을 공감하고 추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차 례

전시소개	.....	1
김금철 / 금복상회	.....	3
류진곤 / 진선오디오	.....	11
이기석 / 평택쌀상회	.....	19
임순자 / 대호정	.....	27
장선심 / 혜성미용실	.....	35



김금철

금복상회





# 자수와 함께 새기는 강직한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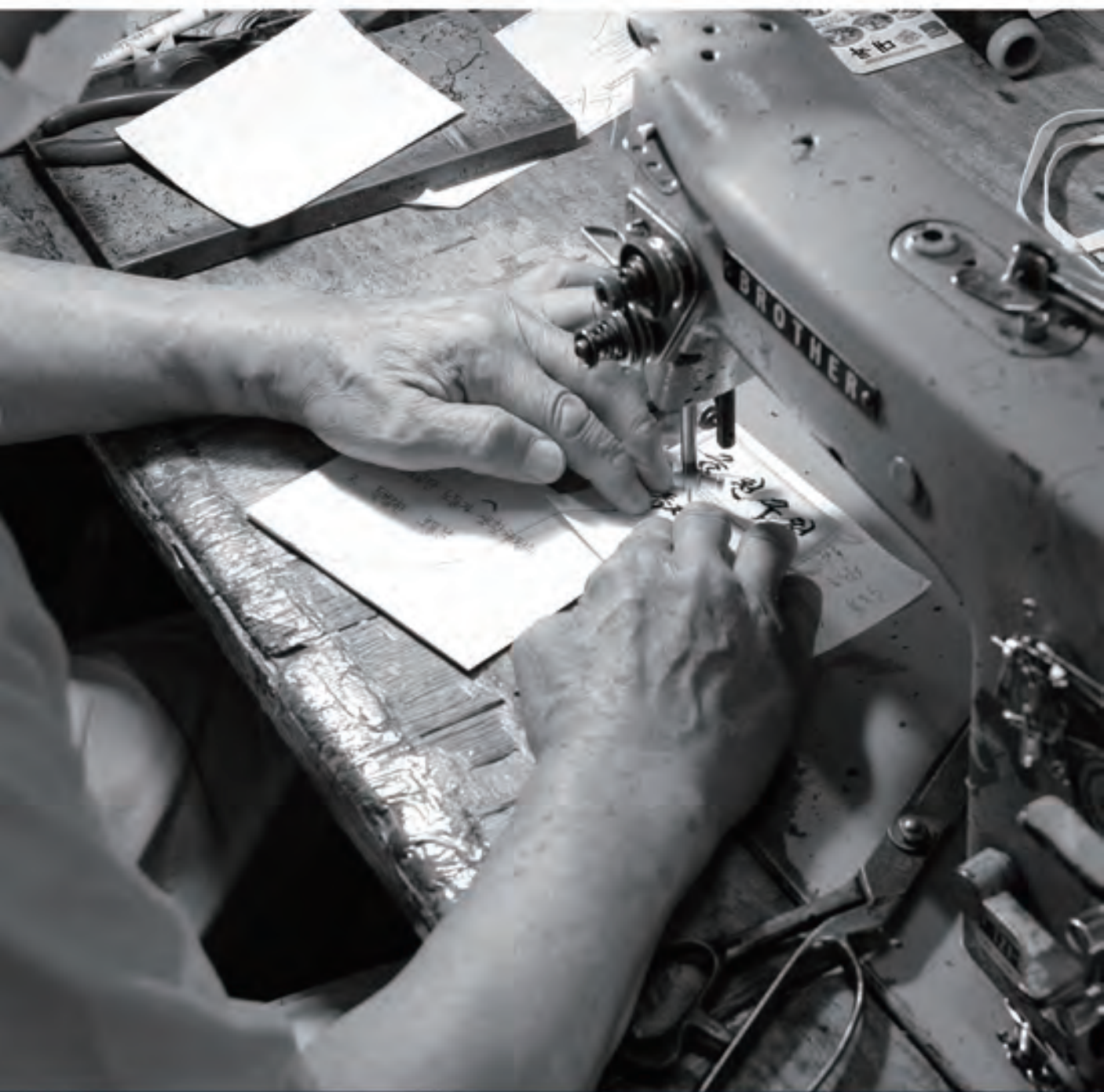
김금철 | 금복상회 금천구 시흥대로 146길 33

독산동 남문시장 골목, '명찰, 실, 작크'가 적힌 입간판이 있는 금복상회는 40년째 예스러운 재봉틀과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봉제 부속품점이다.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해 대부분의 가게들이 컴퓨터 자수를 사용하지만 직접 재봉틀로 수를 놓는 이름표를 제작할 수 있는 곳이다.

제대 후 매형 집에서 시작한 봉제 일을 어느새 40년이 넘도록 하고 있는 김금철씨는 본인 이름에서 '금'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에서 '복'을 따 그렇게 금복상회를 시작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 작은 공간을 빼곡히 채운 수많은 실과 단추 그리고 오랜 세월이 묻어 있는 낡은 미싱기가 정겹게 방문객을 반긴다. 손님이 찾아오면 김금철씨는 어지럽게 놓인 물건들 속에서도 정확히 손님에게 필요한 물건을 찾아낸다.

기성복이 일반화되면서 이러한 봉제 부속품점에는 서서히 손님이 줄었다. 그러나 '손님과의 약속'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김금철씨의 영업방침으로 여전히 시장 사람들과 지역의 오랜 단골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요리하는 사람들이 앞치마에 자수 명찰을 새기러 오기도 한다.

40년째 이어 오는 김금철씨의 강직한 철학을 인정받아 서울시 '오래가게'로 선정되어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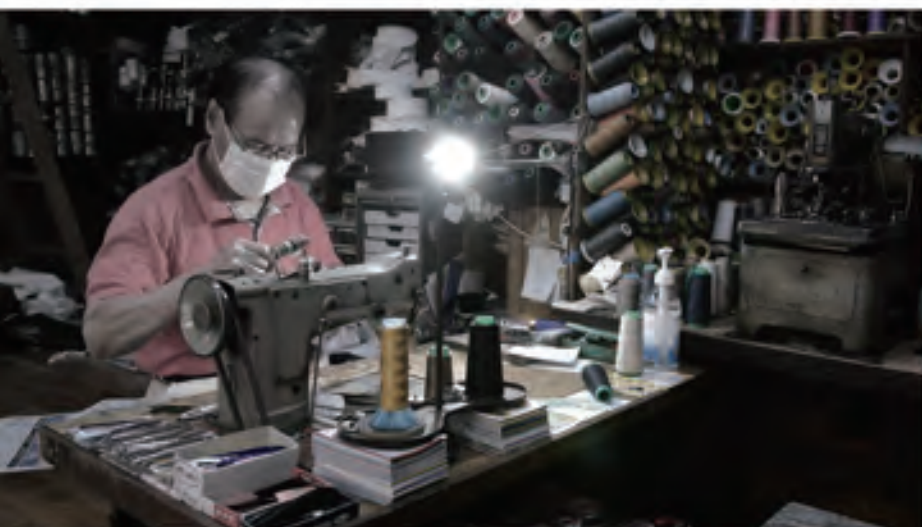




김금철씨가 제작한 수제 명찰



금복상회의 봉제부속품들





류진곤

진선오디오

REPRODUCED, COPYING, PUBLIC PERFORMANCE AND BROADCASTING OF THIS RECORD PROHIBITED



가요제  
스트

33<sup>1</sup>/<sub>3</sub> STEREO ∞

HC-200382  
MADE IN KOREA 1

산 (3 : 55)  
(5 : 25)  
아비 (3 : 17)  
: 02)  
: 09)  
후 (4 : 11)  
4 : 53)

ION REGISTRATION NO. 24



## 소년 선반공의 꿈은 이루어진다

류진곤 1 진선오디오 구로구 중앙로3길 50 산업용품센터 가동 라열 14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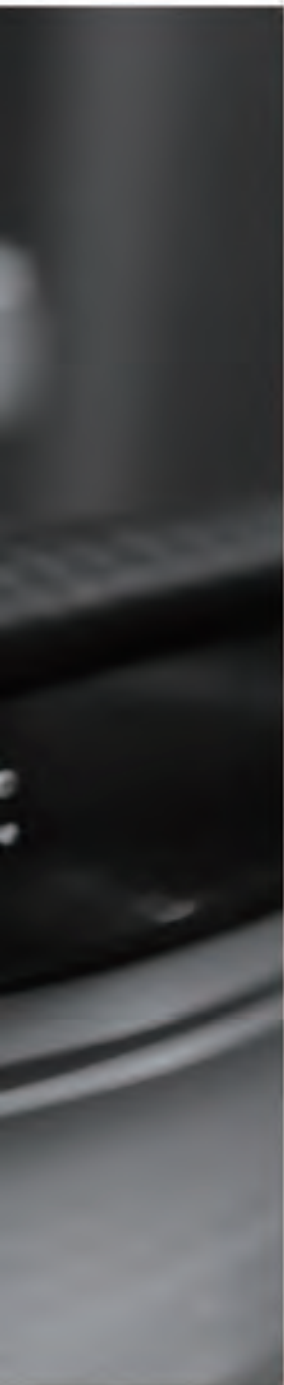
류진곤씨는 학창 시절 형이 사다 준 5개의 LP 판을 들으며 음악과의 연을 맺어 친구들과끼리 모이면 음악 담당은 자신이 할 정도로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대단했다.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던 중 열여덟 살에 맨 주먹으로 남원에서 서울로 상경해 선반 밀링 공으로 공장일을 처음 시작했다고 한다.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유난히 좋아했던 LP는 홀로 서울에 올라와 낯선 공장에서 고된 일과를 견딜 수 있게 해 주었다. 착실하게 쌓은 기술이 입소문이 나고 고척 기계상가가 생기던 1988년, 자신만의 가게를 열게 되었다.

처음 약 10년 동안은 산업용 장비를 만들거나 기계를 수리해 주는 일을 하며 어떻게 하면 음악 장비들이 소리가 잘 날까 생각만 하다가, '직접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에 직접 음악 장비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오디오 쪽으로 전향하게 된 나이는 서른 살 무렵 즈음이었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며 모두 독학으로 턴테이블을 직접 깎고 만들었던 외롭고 고단한 길이었지만 평소 음악을 사랑한 그였기에 성공할 자신이 있었다고 한다. 1992년 즈음부터 산업의 발달로 CD가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LP가 하향세를 땀지만 1995년 이후에는 한국에서도 대중문화 속에서 '마니아'층이 생기면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턴테이블 장인으로 25년째 외길 인생을 접어들며, 지금까지 만든 장비들만 900대가 넘고 가장 비싸게 판 턴테이블은 1,200만원 상당일 정도로 LP를 사랑하는 마니아들 사이에서 여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 기계 상가 한 편에 LP를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들러서 즐길 수 있도록 LP카페를 만들었다. 언젠가는 좋은 음악실을 갖고 싶다는 막연하기만 했던 꿈을 이룬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즐거움을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







류진곤씨의 LP판 (MBC대학가요제)



류진곤씨의 LP판 ('89 해바라기)











# 영원한 국수 세대를 위하여

이기석 | 평택쌀상회 금천구 독산로40길 27-5

1988년,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으로 200~300명의 부상자가 속출했던 노동 현장을 경험한 후 이기석씨는 6년간의 해외 노동자 생활을 접고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금천구에 터를 잡게 되었다. 지인 소개를 통해 쌀 상회를 시작하게 되었으나 1994년 양곡관리법 개정에 의해 쌀 판매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허가지역 외에 누구나 쌀을 팔 수 있게 되면서 쌀 판매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져 본격적으로 국수가게에 몰입하게 되었다.

25년 전만 해도 금천구에는 몇몇 국수 가게들이 있었으나 라면의 성장에 따라 국수는 점차 인기가 시들었으나 끊임없이 국수를 개발했다. 이후 백년초 국수, 메밀 국수, 썩 국수, 단호박 국수 등을 다섯 가지 국수로 묶어 '오색 국수'를 개발했는데, 남녀노소 불문하고 맛과 영양부터 시각적인 재미까지 복돋아 지역민들에게 인기가 많아졌다. 또한 오색 국수를 만드는 국수 가게를 배경으로 2005년에 방영된 드라마를 통해 국수에 대한 사람들의 흥미가 높아져 날로 입소문이나 현재는 강황 국수, 톳 국수, 다시마 국수 등 다양한 국수를 연구하고 있다.

물론 국수만으로는 어려워 한때는 통닭 장사를 할 때도 있었고, 최근 밀가루가 몸에 안 좋다는 인식 때문에 매출이 줄었던 때도 있었지만, 평택쌀상회의 국수를 한 번 맛본 사람은 마트에서 파는 공산품은 절대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평택쌀상회의 국수 외에는 못 먹겠다며 단골손님들에게 여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서울시 '오래가게'로 선정된 이후로는 다양한 방송사를 통해 국수 외길 인생의 노하우와 장인 정신이 소개되면서 국수에 대한 열정과 정성이 통해 지금은 전국적으로 택배 배송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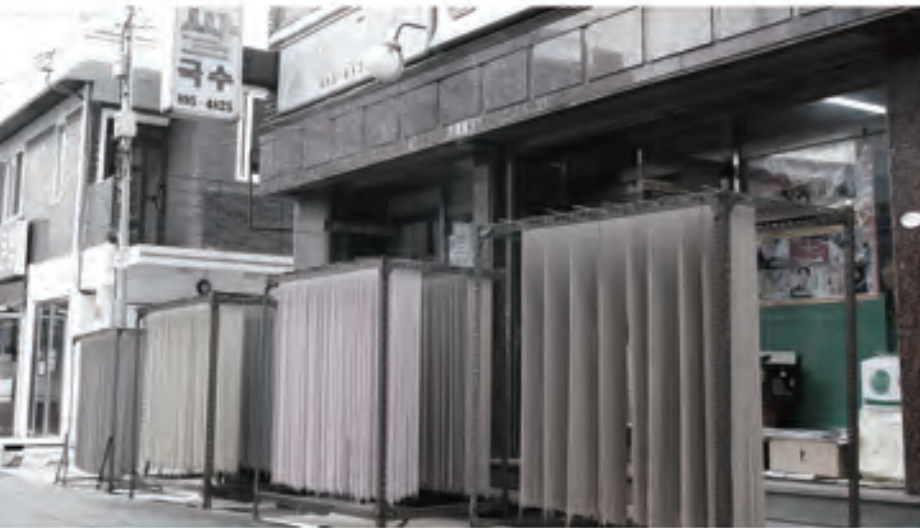




갓 뽑은 국수를 말릴 때 쓰는 평택쌀상회의 국수걸이대



평택쌀상회의 소면











# 오래도록 사랑 받는 가게

임순자 | 대호정 시흥대로52길 51

금천구 대명시장 내에는 40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친절함으로 사랑받는 맛집이 있다. 바로 돼지갈비, 한우구이 중심의 한식 전문점인 '대호정'이다. 대호정의 임순자씨는 1970년부터 정육점, 쌀가게,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이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고기를 주로 하는 음식점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정육점을 운영했던 노하우로 질 좋은 고기를 공급받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맛 좋은 고기를 대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82년 막내아들의 백일잔치 이후로 시작하게 된 대호정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산대에 자리 잡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바로 '주판'이다. 전자 기술의 발달로 전자계산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순자씨는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주판을 사용하고 있다. 손님들이 계산을 하다가도 그 주판을 보면 어렸을 때의 아련한 추억이 생각난다며 이제는 대호정에서는 임순자씨의 세월을 상징하는 없어서는 안되는 소중한 물건이 되었다.

처음 운영했을 당시 일손이 부족해 한창 식당이 바쁜 시간이면 손님들이 임순자씨의 어린 자녀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칭얼거리면 업고 나가서 대신 재워줄 정도로 임순자씨와 대호정을 사랑하는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운영할 수 있었다며 늘 감사함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

40년간 대호정을 향한 정성을 인정받아 금천구 최초 '백년가게'로 선정됐다. 모든 것에 감사하다는 임순자씨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한 끼가 오늘도 손님들에게 행복을 선사하고 있다.

대호정

40주년기념

추억의

냉동삼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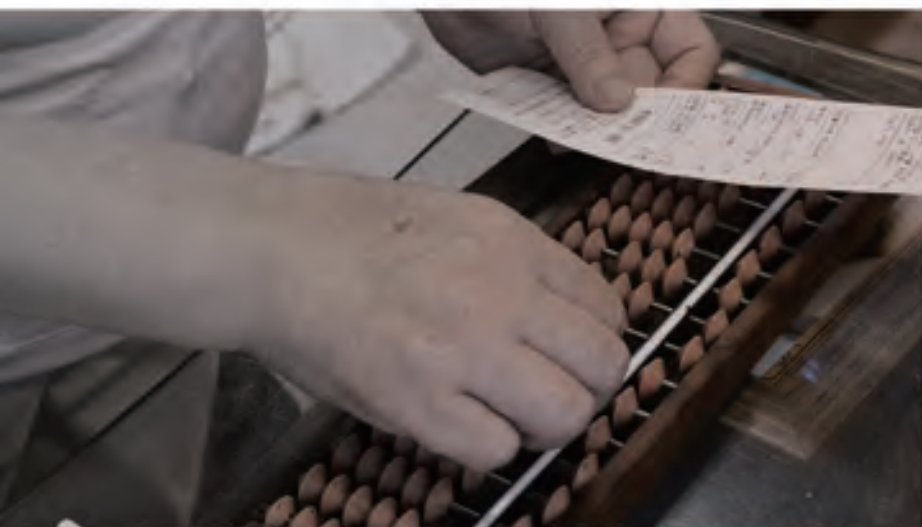


4,900 원





임순자씨의 주판





백년호정에서 있는  
우리들의 오늘

**백년호정 '내소장'**

호정 백년호정에서 100년 동안 맛있게 요리하는 전통을 이어가는 백년호정입니다. 백년호정에서는 전통적인 맛과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하여 고객들에게 최고의 맛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백년호정에서는 전통적인 맛과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하여 고객들에게 최고의 맛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백년호정에서는 전통적인 맛과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하여 고객들에게 최고의 맛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 선 심

／  
혜성미용실





# 밥만 먹으면 기르는 머리, 조금만 지나면 자라니까

장선심 | 혜성미용실 구로구 고척로6길 42

어느 추운 겨울, 미용 일을 배우고 싶던 전라남도 진도의 어린 섬 소녀는 무작정 기차에 몸을 싣고 서울역에 도착했다. 그렇게 장선심씨는 시골에서 꿈꾸었던 서울에서의 삶과 야망을 품에 안고 서울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으나 서울의 삶은 척박했다. 아버지가 주신 2만 5천원에서 미용학원 속성과 3개월 분 1만 5천원을 내고 남은 생활비 만 원으로는 생활하기에 넉넉지 않은 현실이었다.

학원 안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 외에도 도시에서 식모살이를 하다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 당시 식모살이를 했던 친구들이 밀가루를 수제비처럼 손가락으로 푹, 푹 끊어 끊여주던 라면은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게 학원을 졸업하고 난 후 처음에는 미용사로 월급 8만 원을 받으며 일을 했다. 보통 주인은 기술이 없어 대부분 미용사를 고용했는데 8개월에 접어들 때 즈음 장선심씨의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이 통해 주인 언니의 운영 제안에 가게를 도맡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앞 골목 자리에서 지금 혜성 미용실 자리까지 41년째 업을 이어오고 있다.

구로공단 시절에는 가발공장, 삼립빵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오갔고, 공단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많았다고 한다. 그 중 삼립빵 공장을 다니던 친구가 있었다. 그 당시 공장이 3교대라 늘 피곤함을 달고 살던 친구를 위해 2백원짜리 닭 한 마리 사 들고 닭장처럼 늘어진 기숙사에 찾아가 공장에 나가 부재중인 친구의 방문 손잡이에 편지와 닭 봉지를 걸어두고 돌아오던 그때는 지금도 함께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즐거운 추억이 되었다.

아침 일찍 부지런히 가게 문을 열면 노련한 미용 기술과 푸근한 마음씨에 상계동, 오이도 등 먼 곳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단골들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장선심씨의 착실함과 오랜 세월을 인정받아 혜성미용실은 서울시 '오래가게'로 선정되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장선심씨의 세월이 담긴 미용기구 (불고데 인두)



혜성미용실의 미용 재료들





2020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 체험관 특별전

# 특별한 보통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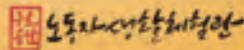
구로공단을 살아 온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VR 온라인 전시

2020. 9. 7.(월) ~ 연중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구로공단 시절을 살아 온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옛 구로공단과 그 안에서의 다양한 삶을 다루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당연한 일상이 어려워진 이 때, 많은 이들과 함께  
추억할 수 있는 공감의 장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온라인 전시관  
QR코드



2020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특별한 보통날> 전시 포스터

2020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 특별전

# 특별한 보통날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전시총괄 김현정 지역경제과장 이정언 기업지원팀장

행정지원 윤소리 | 전시기획 이효정 | 전시진행 김연화



금천구  
GEUMCHEONGU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이 책자의 저작권은 금천구청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에 있습니다.

 구로노동자생활체험관